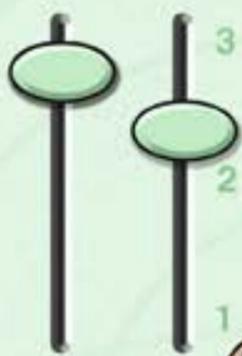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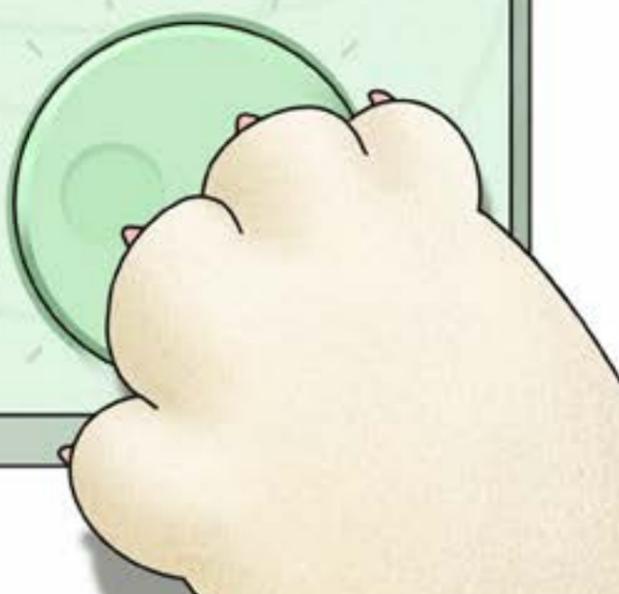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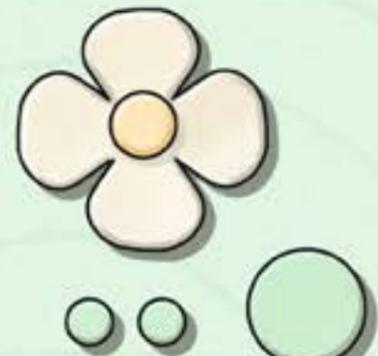
ANTI-FREEZE

조울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자연의 권력관계를 지우기,
 그리고 진정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그림: SUBSUB



ANTI-FREEZE

안티-프리즈

ANTI-FREEZE(안티-프리즈)는 ‘~을 방지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anti-’와 ‘얼어붙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freeze’의 합성어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가 단절 없이 동등한 상호작용을 계속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매거진 『ANTI-FREEZE』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년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생태 감수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한영애, 「조울」, 1992.

가수 한영애가 1992년 발매한 앨범 『한영애 1992』에 수록된 곡이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오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조울」의 가사에는 과거부터 언제나 존재했던 하늘님과, 그 아래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의 열린 가슴과 사랑의 실천이다.

편집자 X ㅈㅅㅅ	3	다정한 세상이 그리울 때	18
사랑에도 매뉴얼이 있나요? 괄호 열고 () 괄호 닫고		영화 〈패딩턴〉	
특집 기사	4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18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		감기에 특효약 배속	
작가_박수현	6	시선 담기 II_타로인류학	19
새를 위한 작은 추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유 있는 인터뷰 I	10	편집실 PLAYLIST	19
좋은 농부 되기, 그리고 좋은 소비자 되기		Vol2.조울	
이유 있는 인터뷰 II	12		
혼자가 아닌 같이, 생산도 소비도			
비건 V씨의 비법서	13		
시선 담기 I_턱피는여자들	14		
인간은 멸종하지는 않겠다.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도 시도하고, 실패하겠지. 아주 인간적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ANTI-FREEZE! 자연에 손 내밀어보기	16		
탐조와 파종			



표지이야기

자연의 생명들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조울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작가 특유의 몽글몽글 사랑스러운 드로잉으로 그려냈다.

그림 SUBSUB
INSTAGRAM @sub.sub

편집자 X ㅈㅅㅅ

사랑에도 매뉴얼이 있나요?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원사)

2023년에도 봄, 여름, 가을을 겪어냈고, 다시 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특히나 올 여름 즈음부터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유례없는 기후 재난 소식에 두려움이 커졌다.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여러 현상들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이는 다시 자연의 기후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당장 직업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 본격 생태계 이해하기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이다. 나아가 생태계에 대한 더욱 넓고 깊은 이해들을 공유하고자 발행한 것이 바로 이 매거진 『ANTI-FREEZE』이다. 1호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명들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기 전, 모든 관계의 시작인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만든 가족이라는 땅, ‘나’의 미숙함을 마주하는 일, ‘내’가 속한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이기심과 폭력성, 그리고 인간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나’들….

그리고 2호에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지구의 다른 생명들과 책임 있는 관계 맺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인간으로서 자연의 생명들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즐거운 테제(These)와 함께 말이다.

그렇다면 개를, 고양이를, 나무와 새와 산호와 고래를 일단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사랑은 기세라지만 기세만 좋은 사랑은 어쩌면 억압과 폭력의 다른 이름이니까. 가깝게는 반려동물에게도 우리는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일방적인 사랑을 퍼붓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다른 종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의지하고 관계 맺고 살아왔지만, 다른 종의 생사 결정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랑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인드-셋팅을 위한 생명권리 개념과 구체적 실천 매뉴얼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에게 개가 반려종이듯, 개에게 인간도 반려종이다. 『쌍방 사랑 완성하기 A-Z』같은 매뉴얼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간의 마음가짐 바이블』 정도는 된다.

다시 겨울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만물이 깨어날 즈음에는 같은 높이에서 다른 생명들과 눈을 맞출 수 있길 바란다.

괄호 열고 () 괄호 닫고

글: 김정민(도시연구원사)

나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어느새 12월이 되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율하며 정리하고 있다. 나도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조율해 왔는지는 모르겠다. 1호와 2호 사이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호에는 괄호 안에 (건축가, 디자이너)로 나를 설명했는데, 이번 호에는 (도시연구원사)로 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대학원에서 도시를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괄호를 치게 됐다. 괄호를 열며 나를 어떻게 호명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주제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도시 속에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도시연구자가 되었다. 존재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는 자신이 없다.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도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행위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때도 그 목적은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함이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특정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기존 자연 생태계는 물론 기존 인간 생태계조차 파괴하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계속해서 등급을 만들고 계급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계급 속에서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은 없어져도 된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있어도 되고, 어떤 동물들은 없어져도 되고, 몇백 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들조차 인간들의 여가를 위해 사라져도 된다고. 이런 일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도시를 공부한다고 하면 으레 듣는 소리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것이다. 어떤 땅의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은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 개발인지 하는 얘기들. 아예 인간이 사라진 생태계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나는 모든 인간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인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는 조율이 필요하다.

괄호를 열게 되면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앞에 직면하게 된다. 그 잡다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가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살게 된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다시 또 괄호를 닫고, 새로운 괄호를 쳐낸다. 물론 아직 닫지 못한 괄호들도 있다. 어떤 괄호들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까지 닫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차마 조율하지 못해서, 차마 정리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나 열려있는 괄호로써 끝을 내지 못한다. 연말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율하면서 살아왔는지 기억을 해본다. 괄호를 하나 둘씩 닫아본다. 닫으면 새로운 괄호가 열릴 것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괄호 안에서 조율을 해가는 삶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일 테다. 괄호를 열고 닫자. 인간답게.

강연섭	INSTAGRAM @excitinglunch	김정민	INSTAGRAM @jminutemaid WEBSITE www.jminutemaid.com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편집자 강연섭은 기술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고 있다. 기술매체를 연구해 세상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에 크게 흥미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나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으로 인도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은 작고 무해하고 에너지 넘치는 인간들과 손잡고 우리의 엔트로피를 무한히 높여 보기로 했다.		김정민은 건축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에 살아가는 주체들에 대해, 그 중에서도 공간이 없는 주체들의 공간에 관심이 많다. 이때 주체는 인간만을 상정하지는 않으며, 식물과 동물, 생물과 비생물, 건축과 자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서울퀴어컬렉티브의 멤버로 2019년부터 활동하며 퀴어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연구자로서 도시에 대해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발행인: 유인택(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 기획: 강연섭 | 코디네이터: 조소정 | 책임편집: 강연섭, 김정민 | 글: 강연섭, 김정민, 박수현, 이지수, 이후석, 정수경, 진민섭 | 디자인: 김정민 | 내지 일러스트: 이지수 | 사진: 송유섭 | 인쇄: 지구나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학예지원: 문형순(총괄, 학예운영실장), 최혜경, 안진희, 김형준, 박민주 | 홍보: 박지은 | 시설지원: 강병현, 이홍일, 박성모, 손지완 | 전시운영: 박희정, 황수진, 이수진, 유세정, 장정민 | 안내: 김혜선, 장현주, 문요림, 김수연 | 미화: 엄현진, 임미경, 강옥란, 김윤

Copyright 202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All rights reserved.

이 매거진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 환경+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https://ngcm.ggcg.kr/> 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

글: 강연섭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ANTI-FREEZE(안티-프리즈)』 제2호 「조울」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 하며, 자연의 생명들과 인간이 진정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든 시작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 유네스코가 선포한 ‘세계동물권리선언문’은 지구에 속한 인간이라는 생명이 지구에 속한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첫걸음에서 가히 최고의 실천적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특집 기사로 미래 지구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동물권리선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세계동물권리선언문’이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엄숙하게 선포된 지 45년이 되었어요.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은 이 선언문의 조항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어린이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공존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풀어 쓴 책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을 훑아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에 한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 모든 동물은 권리가 있으므로,

- * 동물의 권리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범죄로 이어져 왔고, 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 * 다른 동물 종의 생존권에 대한 인류의 인지는 동물 세계 전체에 걸친 중 간 공존의 토대이므로,
- * 인간은 동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고, 대량 학살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 *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 * 어린 시절부터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배워야 하므로,

이것을 선언한다.

제1조

모든 동물은 생명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제2조

1.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인간은 하나의 동물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하고,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다.
3. 모든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관심 및 보살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어떤 동물도 학대받거나 잔인한 행위를 당해서는 안 된다.
2.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 이는 극악적이고 고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1. 모든 야생동물들은 땅, 하늘, 또는 물 어디든 자연환경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번식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교육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유의 박탈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5조

1. 전통적으로 인간 환경에 사는 동물은 그 종 특유의 생태와 습성을 지키며 자유로운 상황(조건)에서 살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2. 동물의 종 번식을 위한 생태와 습성 및 자유로운 상황(조건)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권리 침해이다.

제6조

1. 모든 반려동물은 그들의 자연 수명을 다할 권리가 있다.
2.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제7조

가축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일의 강도와 시간을 제한해야 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동물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할 권리가 있다.

제8조

1. 과학적, 의료적, 상업적, 어떠한 연구 목적에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실험은 동물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2. 대체 방법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제9조

식품 산업에서 동물이 사용될 경우, 동물을 사육하고 운송한 뒤 도살 전 우리에게 가두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1. 어떤 동물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착취해서는 안 된다.
2. 동물과 관련된 전시 및 구경거리(쇼)는 동물의 품위와 양립할 수 없다.

제11조

동물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모든 행위는 생명 파괴, 즉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제12조

1. 야생동물을 집단 살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대량 학살, 즉 그 종에 대한 범죄이다.
2.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대량 학살로 이어진다.

제13조

1. 죽은 동물은 정중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동물과 관련된 폭력적인 장면은 인도적 교육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TV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1. 동물의 권리를 수호하는 운동의 대표자는 정부의 각계각층에서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2. 동물의 권리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

*위 선언문은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에 실린 번역본을 발췌하였습니다.



제5조

많은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한국에서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요.

...

새는 투명한 유리창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날아가다가 부딪히죠. 새는 평균 시속 36~72km 속도로 날아요. 게다가 새는 두개골이 얇고 뼈가 약해서 날다가 부딪히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제6조

반려동물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11만 마리 가량이 동물보호센터를 찾았어요. 유기동물은 보호소에서 10일 정도를 머무르다가,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 안락사 돼요. 보호자가 찾아가는 비율은 고작 10%, 분양은 30% 정도이고 나머진 반 이상은 안락사된다는 의미예요. 반려동물 유기는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예요.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먼저 자격증을 따고, 반려견 세금을 내야 해요. 자격증을 따려면 두 번의 시험을 치러야 해요. 반려견에 대한 지식, 법률, 상식에 대한 1차 필기시험과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

매년 내는 동물보호 세금은 14~17만원 정도고, 예방접종과 건강 검진까지 받으면 수백만 원이 들어요. 많은 돈을 내는 만큼 독일에 사는 반려견은 다양한 혜택을 누려요. 반려견이라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요. 물론 반려견도 1,000원 정도 차비를 내야 해요. 게다가 담당하게 식당과 카페와 상점을 들어갈 수 있고,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제12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수산 자원 1/3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해요. 바다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 이유는 '남획'과 '혼획'을 꼽을 수 있어요. 남획이란 물고기나 동물이 번식하는 속도보다 더 많은 양을 잡아서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혼획은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힌 것을 말해요.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곳에서는 언제나 혼획이 발생해요. 특히 고래, 상어,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이 혼획으로 많이 죽어요.

...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2048년쯤이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씨가 마르게 된다고요.

사람이 생태계 최고 상위 포식자가 되면서 생태계는 혼란에 빠졌어요. 게다가 최고 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동식물을 고갈시키며 환경까지 파괴했어요.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산호가 사라졌고, 바다에는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나 해양생물이 고통받아요.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해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착한 사회를 위한 공존과 생명권 이야기)』는 배병호 환경운동가와 정종영 작가가 함께 펴낸 책이다. 인권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다루며, 미래 지구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다.

함께 실천해 보기 1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온라인 페이지인 네이처링(<https://www.naturing.net/>)에 접속해 보세요. 새들의 유리창 충돌 뿐 아니라 수많은 종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함께 실천해 보기 2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해 ‘버드세이버(조류 충돌 방지 필름)’를 붙여주세요. 소요산이 비치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새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버드세이버’를 작품으로 설치했어요. 작품이 설치된 유리벽에는 새들이 한 마리도 부딪히지 않고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보기

2023년 4월 27일, 제정 이후 31년 만에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어요. 보호자의 반려동물돌봄의 의무도 강화되었는데,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를 때는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을 금지했어요.

제14조

영국,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한국보다 100~200년 정도 빨랐어요. 한국은 1990년경에 동물보호법을 처음 만들었고 동물보호단체가 생겨났거든요. 인권처럼 동물 권리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동물보호단체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같이 행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법이 바뀌고, 동물 권리도 향상될 수 있어요.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찾아 구입해 쓰는 일도 중요해요. 육류 소비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농장에서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꼭 필요해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동물의 권리가 있어요. 인권이 인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라면, 동물 권리는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예요.

위 내용은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의 본문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를 위한 작은 추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숲에서 꿈꾸는 어린이’를 표방하는 박물관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태를 몸으로 체험하고 꿈을 키우길 바란다. 그런데 소요산의 능선이 아름답게 비치는 박물관의 유리벽은 줄곧 비행을 하다 부딪혀 죽는 새들의 무덤이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박수현 작가는 ‘새’를 모티브로 삼고, 2층 복도 유리벽을 경계로 밖으로는 버드세이버¹를, 안으로는 등지 형태의 관람객 참여형 작업을 설치했다. 박물관에 날아드는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 한 인간의 생애를 투영하여 따뜻한 은유를 보여주는 그의 작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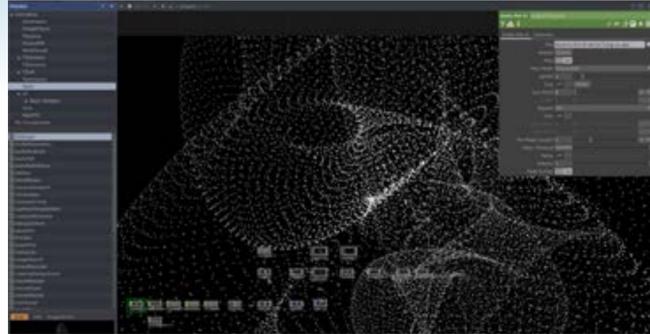
산(散)

1. 버드세이버는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이나 유리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이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들이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5x10cm 간격을 지키고 도트무늬나 라인무늬, 혹은 그에 준하는 기하학적 무늬 등을 권고하고 있다.

낯은 세상을 등지고 나아간 낯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기도 한다. 날아가 안기려 했던 자연의 깊은 품이 유리벽에 비친 투명하고 맑은 풍경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새의 날갯짓은 멈추고 모든 소리는 사라진다. <산(散)>은 가로막힌 벽 앞에서 **홀어지며 사라져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통해 사라진 생명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새소리에 반응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이 연상되는 순간을 담아냈다. 박물관 2층 복도에서 내다보이는 소요산의 풍경을 뜻하는 동시에 ‘홀어지다’라는 의미를 빌려와 제목을 붙인 <산(散)>은 홀어지는 소리를 통해 사라진 존재를 기억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새소리의 가장 높은 주파수대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듯한 소리 반응형 이미지를 구성했고 이후 송출시킨 영상에서 새의 형상이 겹쳐 보이는 우연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최종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을 가진 전통 건축의 ‘차경’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건물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미 많은 경계가 생겨버린 지금,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풍경뿐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보는 안, 다시 말해 자연이 인간을 바라보는 풍경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작가노트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 모색과 함께 작품 기획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료는 과거 환경예술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읽었던 도서인 『New Media Art 2017: Back to Nature』였다.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조류 10종의 울음소리를 사운드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매핑한 후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Elisabeth Pellathy의 <Visualized Bird Song>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버드세이버 그래픽 시트 작업인 <산(散)>의 제작 방식 모티프를 얻었으며, 그와 동시에 ‘사라진 생명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어른과 아이의 눈높이에서 동시에 감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산(散)> 제작 과정 - 프로그래밍 Bird saver Generating Process

<산(散)>의 형태 리서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은 김리운 시인의 시집 『투명도 혼합 공간』에 수록된 시 「영원에서 나가기」였다. ‘굳어가는 새는 새의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아이러니하지만 움직임이 사라져 굳어져가는 새의 작은 몸집은 외려 새의 존재를 더욱 선명히 만들어 주는 조건이기도 했다. 충돌은 곧 죽음이라는 현상적 조건에서 잠시 벗어나 움직임의 소멸과 형태의 보존이라는 역설적 관계에 주목하자 비로소 주제 전달 및 시각화를 위한 기호들이 발견되었다. 굳어진 형태 또한 시간이 지나면 썩어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지금-여기에서의 사라짐은 언젠가-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 시간을 동시에 머금고 있다. 비록 지금-여기에서는 먼지처럼 작게 분해되어 흩어지지만 언젠가-어딘가에서 다시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기를 기원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들을 연상시키는 도트(dot) 형상으로 소리 반응형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나는 발이 없는 것만이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두 발로 나뭇가지를 움켜쥔 새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속도로 자란다
기다리는 시간 앞에서 숫자는 얼마나 길게 늘어지는지
동전을 세는 손안에서 숫자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살아 있었던 것들을 세는 마음 앞에서 숫자는 얼마나 거대해지는지

우리와 세계가 서로 단단하게 묶인 레이어라면
같은 비율로 커지다 먼저 멈출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작은 손으로는 나뭇잎 하나 망가뜨리기 어려울 텐데
우리는 참 쉽게 깨질 텐데

우리문은 가볍게 회전하고 우리는 문 안으로 미끄러진다
우리는 너무 많은 영화를 너무 많은 스크린을 봤다
프레임 안으로 쉽게 미끄러진 다음
화면 바깥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매일 2만 마리의 새들이 유리 벽을 통과하려다 죽는데
자그마한 발을 가진 작은 새들
다 큰 새들은
다 자란 다음에도 새롭게 거대해지는 풍경이 의아해

강화 유리는 안전하게 깨지는 유리이기도 하지
설탕 결정처럼 우수수 쏟아지는 유리 파편 아래의 새를 본다
가느다란 뼈와 연약한 살 부드러운 깃털
굳어가는 새는 새의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세계는 형태가 결정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레이어다

도시의 유리 벽들은
끝없이 자라는 나무에게도

『영원에서 나가기』 중에서, 김리운



박수현, <산(散)>, 2023, 오디오 리액티브 비주얼², 새가 유리벽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버드세이버 그래픽 시트, 사진: 송유섭 Suhyun Bahk, <Rest>, 2023, Audio Reactive Visuals

2. 오디오 리액티브 비주얼은 오디오의 입력을 어떠한 시각 효과에 매핑하여 시각적으로 진동하거나 공명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표현 기법이다.



<산(散)> 제작 과정 - 프로그래밍 Bird saver Generating Process

집(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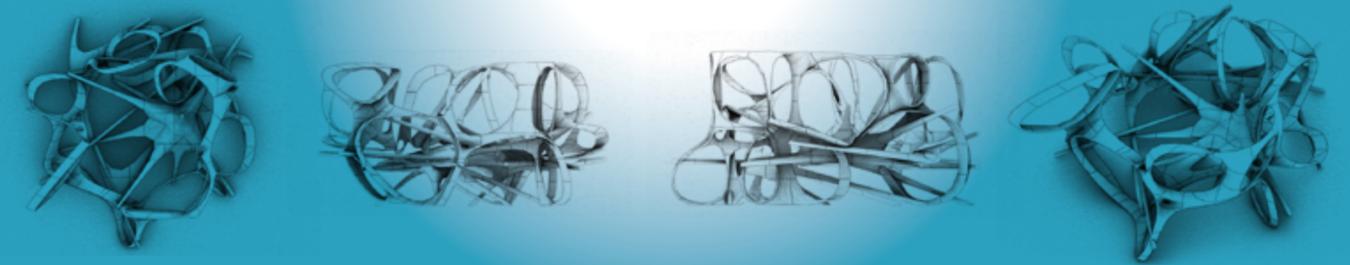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알을 깨고 등지를 떠나는 새처럼,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낡은 세상을 등지고 낯선 세상을 마주한다. <집(集)>은 **집 없는 날갯짓에 잊히는 떠난 새의 기억들 - 이름 모를 새가 버리고 떠난 텅 빈 등지처럼 곧 썩어 사라질 빈 껍질들에 모여드는 작은 손길과 그들이 전할 따뜻한 숨결에 대한 이야기다.**

'빈 등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³은 애착의 대상이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역할 상실감을 뜻한다. 텅 비어버린 등지처럼 쓰임이 없는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이번 전시의 취지에 따라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매일의 보금자리인 집을 뜻하는 동시에 '모이다'라는 의미로서 제목을 붙인 <집(集)>은 이름 모를 새가 버리고 떠난 텅 빈 등지를 소재로 하여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다룬다. 지어지기까지는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연히 쓰임이 다하게 되면 버려지는 등지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모이고 흩어지는 가족의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등지 형태의 조형물은 형태 구성 요소를 매개 변수화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Parametric Modeling)⁴으로 구현한 후 폴리 젯산(PLA) 소재의 생분해성 수지 조각들로 3D프린팅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3. 빈 등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란 어머니가 물었다 준 먹이를 먹고 자란 새가 새들이 스스로 날갯짓해 등지를 벗어난 뒤 텅 빈 등지 안에 홀로 남겨진 어미 새가 느끼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사람에게 빗대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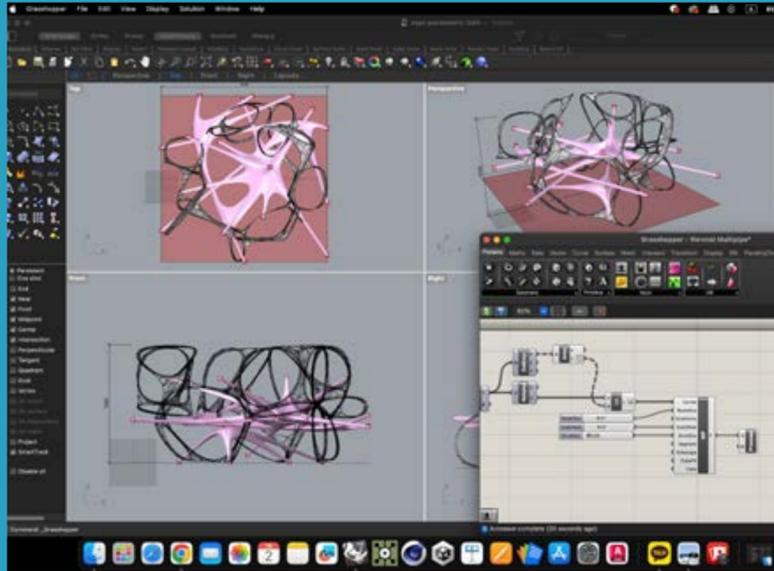
4. 파라메트릭 모델링의 '파라메트릭'은 '파라미터(Parameter)'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매개변수를 활용한 모델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매개변수란 우리가 도면에서 접하는 '치수(Dimension)'를 의미하며, 매개변수를 이용한 모델링이라 하여 '변수모델링'이라고도 한다.



<집(集)> 제작 과정 - Nest Design Sketch

작가노트

관객은 등지 조형물에 섬유 소재의 실과 끈을 함께 감고 엮으며 등지의 피부와 질감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한다. 전시 운영의 특성상 <집(集)>은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변형 과정을 거친다. 탄성이 없는 질긴 소재의 실들은 세계 끌어당기는 힘과 만나 등지의 일부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쉽게 끊어지는 부드러운 소재의 실들은 등지에서 떨어져 나와 등지 주변 바닥을 지저분하게 나뒹굴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텅 빈 등지가 겪게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은 빈 등지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하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함이 온전히 기록되는 것 또한 이 작품의 일부이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공존하는 현재, 변화와 성장의 기로에서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곁에 없어도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될 것이다. 등지와 실이 서로 얽혀가며 변형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오래전에 떠난 집과 바로 지금 머물고 있는 집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의 보금자리와 그 속에서 꾸리게 될 가족의 형태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집(集)> 제작 과정 - 프로그래밍 Nest Parametric Modeling Process



<집(集)> 제작 과정 - 3D 모델링 렌더링



사진: 송유섭



박수현, <집(集)>, 2023, 폴리젯산, 합성섬유, 200x200x100cm (가변설치), 뼈대만 남아있는 빈 등지 형태의 관객 참여형 조형물
Suhyun Bahk, <Nest>, 2023, PLA(Polylytic Acid), Synthetic Fiber, 200x200x100cm (Dimensions Variable)



<집(集)> 제작 과정 - Weaverbird Printing Piece Cutlist



좋은 농부 되기, 그리고 좋은 소비자 되기



유기농 재배농가 ‘주원농원’

인터뷰어: 김정민(도시연구자)
 인터뷰이: 김후주(주원농원 대표)

‘주원농원 = 유기농 배 재배 1호’로 알고 있어요.

주원농원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1956년에 여셨어요. 할아버지 함자가 김주원입니다. 처음엔 여러 작물을 하시다가,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배 과수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2003년부터 유기농을 시작했고, 2006년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최초 3년 동안은 전환기라고 해서 유기농 인증이 나오지 않아요. 토양에 집적된 농약 성분 등이 다 빠져나가는 기간을 3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2015년도부터 대표가 되어 3대째 주원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원으로 간 철학도(哲學徒)

제가 아주 마음을 먹고 내려오겠다!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유기농 사과를 시작하고 싶어하셨는데, 아무래도 배와 사과는 너무 다른 개성을 가진 작물이어서 유기농 배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철학 석사를 막 끝내고, 박사과정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너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대표자리를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감언이설에 제가 넘어갔던 것이죠. 특히나 유기농이라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유기농만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가지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명의 동생이 있는 K-장녀로서 뭔가 책임감을 느꼈던 것도 있었어요.

유기농은 아무래도 더 힘든 부분이 있나요?

일단 수확량도 엄청 떨어지고 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자재비도 훨씬 비싸요. 화학 비료, 농약은 공장 대량생산이니 저렴한데, 유기농가는 30농가가 채 안 되니. 아무래도 값이 더 나가죠. 유기농 초반에는 거의 소득이 없다가서 해서 유기농가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나무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벌거벗겨져 쫓겨난 셈이거든요. 먹던 약도 바뀌고, 추사도 못 맞고요. 당황한 나무들은 첫 3년 동안은 거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 때 많이들 포기해요. 유통도 많이 달라요. 유기농은 도매 판로가 없어서 보통 직거래를 해요. 그래도 요즘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생겨서 이곳이 일종의 도매 판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즙 같은 가공품을 납품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수가 더 어려운 건, 매년 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만들지도 못하고 노지에서 자연을 그대로 맞으면서요.

자연의 순환을 조금 더 존중하기, 유기농

자동으로 되면 좋겠지만, 유기농도 천연 식물 추출물이나 유황을 사용한 방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해성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해충 완전 박멸을 못하는 거예요. 개체수 조절 정도? 그러다 보니 썩은 것, 벌레먹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좋은 것만 골라서 파는 거죠. **곤충들과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기농’이 일반적으로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유기농의 의의는 자연의 순환을 조금 더 존중하는 데에 있어요. 생태계는 순환하잖아요.** 탄소를 덜 배출하는 농법인데, 밭 갈거나 제초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풀이 많이 자라야 이 풀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뺏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탄소도 고정해 주고요. 식물들은 공기 중에 질소나 탄소를 포집해서 자기 몸에 저장을 하고요. 그 식물들이 죽으면 다시

그 땅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또 과일 자체의 영양분이나 단맛을 위해서는 광합성이 중요해요. 햇빛을 잘 받게 해주고 나뭇잎들을 튼튼하고 무성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무성한 풀들이 잎을 갉아먹는 해충의 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익충의 집들도 보존을 해줘요. 벌레들의 개체 수가 스스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벌레가 살고 있으니 새들도 많이 오죠. 그리고 땅 속에도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소동물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리고 미생물들도 많이 살아있어요. 살균제를 평평 쓰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런 작용도 도와주고, 그 땅을 지렁이들이 먹어서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유기농 본래의 의미예요.** 더 엄격한 유기농가는 난방시설과 같은 최소한의 순환을 지켜주는 시설 자체도 하지 않기도 해요. 최소한의 통제도 없이 생태계의 순환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유기농이라고요.

다양한 품종, 다양한 맛

다품종이 유기농의 취지에 맞기도 하고, 저희는 유기농에 적합한 품종을 최대한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신고배는 외관이 좋고 저장성이 좋고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크고 예쁘고 깨끗하고 동그란 모양의 배인데 대신에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유기농에 완전 적합한 품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감천, 추왕, 화산 등등 여러 배 품종을 저희 농원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사이에 샤인머스켓 광풍과 같이 신품종을 원하는 흐름이 있어요. 다양한 감각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큰 과일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작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걸 선호하기도 하고 말이죠. 한 2년전인가, 바나나 멸종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식재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품종의 기둥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하나의 큰 기둥만 있으면 애가 부러지면 이제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이기도 하고 리스크가 큰 농법이라 보완이 가능한 품종 다양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기도 해요.

한국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제 전공이 철학인데, 특히 정치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지금 한국 농업계가 맨날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망 상태예요. 청년 농업인구가 전체 농업인구의 1%이고, 60대 이상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대 농업인들이 은퇴를 하면 농업인구 50%가 썩 사라지게 돼요. 그 이후 중년층들이 노년화 되고, 또 그분들이 사라지면 1%정도의 남은 농업 인구가 텅 빈 농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약 3년 전부터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워낙 인식도 좋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많기도 해서요. 정부 자체도 농업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취급하니 항상 정책적 결단의 순간에서 첫번째로 농업이 희생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당연히 점점 힘들어지고,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핸드폰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밥을 몇 끼만 못 먹어도 살 수가 없어요. 디스토피아적인 근 미래를 다루는 영화의 오프닝은 항상 식량 전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프레시한 생과일 생야채는 아주 소수의 상위 계층만 누릴 수 있죠. 멀지 않은 미래에 식량문제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해요.** 계속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달도록 노력하고, 이런 행동들이 기록되어지고 현상들이 꾸준히 진단되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성 농업인으로 살아가기

‘청여농’은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줄임말이에요. 전국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서 친목, 봉사, 교육, 정보 등을 나누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의 공유가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요. **농업인데, 또 청년, 거기다가 여성이니가 정말 한 줄이죠.** 그래서 고립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역별, 지방별로도 모임이 있고, 모임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친목만 해도 되게 큰 역할이 돼요. 그리고 이런 단체는 표본 조직이 돼요. 청년 여성 농업인이라는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게 될 수 있는 거죠. 청년 여성 농업인으로서 정책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뭐가 힘들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 바로 속속 올라와요. 한 황당한 사례가 있는데, 농사 짓는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주민센터 직원들이 대놓고 “아니 무슨 여자가, 젊은 여자가 농사를 지어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성인지감수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관공서도 이런 실정인데, 사업체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취급을 안한다거나 남편 데리고 오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체성이 중첩되는 만큼 차별도 중첩되어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산시 배작목반이 다 모이면 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대 여성이 저밖에 없어요. 지방은 성차별적인 현상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훨씬 많죠. 제가 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면, 커피 타오라는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이런 경악스러운 사례들이 현실이예요. 그래서 더욱 목소리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좋죠. 개인이 갑자기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체로서 어떤 대표성을 갖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정책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좋은 소비자 되기

저는 농업을 공교육 과정에 집어넣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농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농업에 대한 좋은 인식과 정확한 정보들이 있으면 좋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과대 포장, 품질 저하 등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농부들이 더 합리적인 포장 방법을 찾고 싶고, 유통 과정에서 마진도 많이 빼고 싶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이 커요. 생산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농장 체험도 해보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아이가 농부가 되지 않더라도 좋은 소비 습관이나 마인드가 시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생산 기반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정부도 똑같아요. 농부들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라고 불리는 유권자 시민들이 바뀌어야 좀 듣거든요. 제가 해외연수를 가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이, 뉴질랜드나 호주, 유럽 등은 농업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똥을 퍼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직접 체험해요. 수확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의 과정에서 내가 먹는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정확한 정보로 인지시키는 교육 과정이 전연령에 걸쳐서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사실 한국 교육과정으로는 아이들이 자기가 농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종



추왕



화산



신고

혼자가 아닌 같이, 생산도 소비도



30대 청년남성 주말농부 김상우

인터뷰어: 김정민(도시연구자)
인터뷰이: 김상우(청년농부)

꽃집 아저씨에서 조경 아저씨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식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집 아저씨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사실 꽃집 운영하는 것도 막노동이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의 반대도 있어서 진로를 다시 찾았어요. 조경으로요. 작은 규모의 일도 하지만, 좀 더 큰 규모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식물을 좋아하니가 전공으로 조경학을 선택했죠. 졸업하고 작년까지는 도심 내에 공원이나 가로수를 감독하는 일을 하다가 올해는 도로 관리를 해요. 도로면 비하나 녹지대 같은 곳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기가기하게 식물 기르는 고운 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식물 기르는 일도 절대 고운 일은 아니죠. 플로리스트들이 새벽에 일어나 화훼장 가서 식물을 사고, 다듬고, 클래스도 해야 하고, 정말 부지런해야 하는 일이지요. 어렸을 땐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취미:식집사가 아닌 밭 집사

지금 화성시에 관리하는 밭이 400평이에요. 보통 주말 농장 한다고 하면 4.5평 정도 해요. 그만큼 면적도 삼으로 다 간단다고 보면 작진 않거든요. 여름엔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0평이잖아요. 당연히 혼자 할 순 없어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구매도 어렵고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 전부 농사를 처음 짓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일해요. 서울에서 화성까지는 오전 9시만 넘겨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오전 7-8시에 출발하면 45분만에 도착하더라고요. **원하는 건 집앞에 바로 밭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을 하고 싶은데, 부지런해서라기 보다는 조금씩 매일 하면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와서 보면 손가락만 했던 잡초가 막 사람 가슴께까지 자라 있고, 여름 장마철 지나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요. 그리고 오이망을 넓게 치러고 하면 하루에 5m정도 치고, 일주일 뒤에 와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소비의 미학

여름을 넘어가면 작물들이 계속 나와요. 애호박도 미친 듯이 나오고 가지도 계속 있고요. 한 가정으론 소비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부르고, 부모님도 친구들 부르고 하면서 서로 나눠 먹는 재미도 있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다 소비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필요 없는 건 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맞춰가고 있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집에 강제로 채소가 가득가득 들어 있으니, 이 채소가 쪼그라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먹게 돼요. 무조건 이번주에는 치워야 돼, 이러면서요. 강제로 건강해지는 느낌? 이제 채소 사러 안 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많이 남는 것들은 다 팔려 나요. 다 잘라서 식품 건조기로 건조한 다음에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얼리면 나중에 해동했을 때 그대로 있어요. 4월에 잠깐 나오는 냉이도 이렇게 하면 5.6월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죠.



봄·여름·가을·겨울, 다채롭게.

정말 많은 작물을 기르고 있어요. 중부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은요, 예를 들면 **굴나무** 이런 건 없죠. **굴나무**는 0도만 되어도 죽거든요. **비파나무**도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에서 자라서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야 해요. **커피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큰 화분에 길러요. 그 외의 나무는 진짜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이렇게 대표적인 한국 나무들 있고, **복숭아**는 종류가 조금 많아요. **남작복숭아, 천도복숭아, 백도, 황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두도 피자두, 그냥 자두**, 그리고 **'푸룬'**이라고 불리는 **서양 자두**도 있고요. **포도도 캠벨 포도와 사인머스켓** 있어요. 원래 포도가 원래 엄청 추위에 약해요. 근데 캠벨은 추위에 강한 품종이에요. 그리고 **구지뽕나무, 사과나무, 미니사과나무**도 있어요. **블루베리, 라즈베리**도 있네요. **무화과**도 저기 많이 기르고 있는데 **무화과**는 추위에 엄청 약해서 보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참다래** 말고 **토종다래**라고 있어요.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예요. 또 **산딸기, 헛개나무, 두릅나무, 가축나무**도 있고요. 나물 종류도 있어요. **취나물, 눈개승마, 참나물** 이렇게요. 또 **배추, 가지, 토마토, 고추, 들깨, 참깨** 이렇게는 잘 해먹죠. 아 **연잎밥**도 가끔 해 먹어요. 연못이 조그맣게 있어요. 물이 올라오니까 전 주인이 그냥 연못을 만들어 버렸어요. **공심채나 미나리**는 축축한 땅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심어 놔어요. **터덕이랑 도라지**도 길렀었고, 아 **생강**도 있어요. 이모부가 가끔 도와주시는데, 이모부가 신기한 거 기르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곤약**도 심어 놓으셨어요. 또 신기한 건 **하늘 마라**고, 공중에 매달려서 자라는 **마**도 있어요. **호박**도 종류별로 기르고, **옥수수랑 마늘**도 여러 종류 길러요. 조금씩 용도나 맛이 달라요.

부산물이 영양분이 되는 여행

식물 부산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열매를 수확하고 남은 가지들, 껍데기들 같은 거요. 부산물을 나무 아래에 그냥 쌓아 놔요. 작물이 자랐다는 것은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것을 구성하면서 커진거잖아요. 거기서 열매와 이파리만 떼고 나머지 부산물은 다시 땅에 돌려 놓아야 이 땅에 영양분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비료 같은 걸 계속 뿌리면, 비료 안에 영양분뿐만 아니라 염분도 많기 때문에 점점 찰 땅이 돼요. 그러면 나무들이 물을 흡수해야 하는데 땅이 더 짜니까 물을 뺐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보리 같은 걸 기르면, 애네들이 자라면서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요. 이렇게 된 보리를 나중에 싹 베어서 땅에 두면, 그 탄소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 있는 염분을 쪽 빨아들여서 고분자로 합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염분이 물에 녹지 않는 거대한 돌맹이처럼 변해서 농도를 많이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취미 농부에서 특수작물 농부까지?

저는 농사를 30대에 시작했잖아요. 30대부터 취미나 아마추어로 시작해서 은퇴까지 약 30년을 한다면, **사실은 직업농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할 즈음에는 농사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희귀한 종자들에 대한 수집욕이 좀 강해요. 그래서 길러보고 이 땅에 맞는 것들만 남겨서 지금처럼 음식으로 먹거나, 나중에는 특수작물 전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미래에 그렇게 되려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건 V씨의 비법서

나는 88년생 용피 V, 비건(Vegan)¹이다. 처음에는 이런 나에게 주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나의 [초 비건력 영역전개] 대작전이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채식 위주자', '채식지향인', '간헐적채식' 등의 아류종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무적이다. 요리 모임의 우두머리인 직장 동료 K는 한 달에 한 번은 비건 요리를 주제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운이 사나운 남고생 조카 S는 하루 한 끼 채식을 시작한 후 피부가 좋아져 애인이 생겼다. 미대 동기 P는 비건패션디자이너로 각광을 받으며 보여주기식 비건니즘 실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비건의 열반에 들었다. 아아... 지금 난 최고로 high한 기분이다.

2024년 용의 해가 다가온다. 내 안의 흑염룡이 깨어나고 있단 말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건니즘 감화] 작전을 퍼뜨리기 위한 비기(秘技)를 남긴다. 이 비법서는 습득한 누구나 실천이 가능하다.

비법병

비건 패션도 파망히 즐긴다
(물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구 환경을 위해 가장 좋다.)

- 아르켓:** RWS 인증(물징프리²) 울 스웨터
- 굿멘:** REPREEVE(플라스틱 재생 원단) 청바지
- 메이크디:** 선인장 가죽 비건 레더 호보백
- 비건타이거:** ज्यासल(공기를 원단) 프린트 탑

채식한끼

채식한끼 앱과 의치만 있으면 어디서든 비건식당에 갈 수 있어

채식한끼 앱으로 내 주변 비건식당 찾기

광포기와 청자끓미는 비건스타일로 경청을 다하기

- 직접 뜨개질해 만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 직접 저녁 만들어 먹기:식물성 단백질 - **템페³**를 이용한 요리

트렌드는 또 붓 찰지, 비건니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 쉽고 맛있는 채식요리와 꿀팁들 **베지래빗** @veggie.rabbit
- 몸과 지구가 건강해질, 식물성의 가치를 알리는 **베지닥터** @vegdoctor_org
-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종차별 철폐와 동물 해방 **동물해방물결** @donghaemul_alw
- '살의 태도로서의 비건'을 지향하는 큐레이션 독립책방 **비건책방** @veganbooks_

부록:비법 수련을 위한 채식 8단계

<p>1</p> <p>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p> <p>유연한 채식주의자. 채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육식도 허용한다.</p>	<p>2</p> <p>폴로 베지테리언 Pollo vegetarian</p> <p>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 난류, 해산물, 가금류까지 먹는다.</p>	<p>3</p> <p>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 vegetarian</p> <p>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 난류, 해산물까지 먹는다.</p>	<p>4</p> <p>락토오보 베지테리언 Lacto-ovo vegetarian</p> <p>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 난류까지 먹는다.</p>
<p>5</p> <p>오보 베지테리언 Ovo vegetarian</p> <p>과일, 채소, 곡물, 난류를 먹는다.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p>	<p>6</p> <p>락토 베지테리언 Lacto vegetarian</p> <p>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까지 먹는다.</p>	<p>7</p> <p>비건 Vegan</p> <p>과일, 채소, 곡물까지 먹는다.</p>	<p>8</p> <p>프루테리언 Fruitarian</p> <p>식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열매와 씨앗 종류만 먹는다.</p>

따뜻하면서 동물권과 지구를 생각하는 겨울 옷 고르는 팁

- ◆ 생분해되지 않는 합성 섬유보단 천연 소재의 섬유 선택하기
- ◆ 합성 섬유를 고르다면? 가능한 친환경 재생 원단 선택하기
- ◆ 천연 양모 소재 구매시 물징 프리(mulesing free), RWS 인증 확인하기
- ◆ 무엇보다 좋은 것은 새로운 옷을 사기 보단 깨끗한 중고 옷을 선택하는 것

*물징 프리(mulesing free): 메리노양을 위한 목덜미 피부 제거 없이 자라게 하면 기는 무도동물과 동등한 양모를 얻을 때 무도동물을 제거하여 자라는 '원유' 채취를 하지 않는 것

*RWS(Responsible Wool Standard): 양의 농번기 동물 복지 준수, 더욱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한 양모를 위한 원산지 및 생산공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인증 프로그램

인간은 멸종하지는 않겠다.

1.

생태계와 생물권의 관계는 집단과 그들이 사는 공간과 유사하다. 생태계(ecosystem)는 지구에 살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까지 포함한 약 300만 종의 생물이 주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 한편, 생물권(biosphere)은 모든 종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대류권, 수권, 암권의 표면을 포함한 생태계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는 총체며 구조화가 된다.

생태계와 생물권의 관계를 인간(들)과 건축의 관계로 치환해 본다. 생태계의 기본 원자가 되는 인간의 형성은 지하층에 해당한다. 이곳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상위층의 골조나 형태에 영향을 준다. 1층에는 생물권이 있다. 지하층에 웅크린 인간은 지구의 모든 종과 관계 맺기를 한다. 같이 사는 법을 깨달은 누군가는 1층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더 상위층은 이어지는 지면에서 얘기하고자 한다.

2.

지구상의 모든 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나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대해 얘기한다. 멸종을 앞둔 '질문하는 영장류'가 자연을 복제하는 이야기를, 그러나 아주 기상천외하고, 쾌활하고, 극적이며, 대차게 실패하는 이야기를. 그 낙담 속에서 어떤 것을 찾느냐는 지금 우리의 역할이다.

3.

2001년 애리조나주 오라찰라, 에어락 문이 소리를 내며 닫힌다. 연구원이 외부 세계를 봉쇄하기 위해 빨간색 금속 손잡이를 아래로 밀어 넣을 때, Biosphere 2 내부의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다. 두겹과 무겁고 습한 공기 속 녹음들, 갈라지고 이끼 낀 시멘트로 만들어진 작은 입구조차 초목과 진흙의 냄새, 삶과 죽음의 냄새가 절게 뒤덮인다.[...] 이 열대 낙원 아래에는 기계가 웅-하는 큰 소리와 함께 돌아간다. 이들은 생물권을 지탱한다. 황무지 아래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지하실 통로가 얽혀 있고, 흰색 플라스틱과 금속관 재질의 구불구불한 배관은 물과 전기를 공급한다. 이들은 생물권을 흐르게 한다. 각 배관은 적절한 지점에서 비나 바람이 된다. 어느 지하 복도에 있는 펌프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킨다.¹

4.

1. Rebecca Reider, *Dreaming the Biosphere: The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2009, (n.p), 프롤로그에서 발췌



Therese M. Shea, *Biosphere 2: solving word problems*. (NY: Powerkids press, 2004)



The Biosphere 2 complex in 1991. Credit... John Miller/Associated Press

축하하자.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래로 약 380만 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 지구 온도를 뜨겁게 올려 놓은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에 남을 예정이다(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긍정의 시그널을 만들기도 한다. 끊임없는 소비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게 역할인 자본주의 하에서도, 지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갖춘 이들이 나타난다. 비영리 단체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건축 등 자본의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활동이 돋보인다. 이제 모든 이들이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객할 수 없다. 돈을 위해 환경을 지키는 역설의 시대다. 33년 전, 욕망으로 자연을 지키고자 한 사례가 있다. 폐쇄와 제한, 욕망과 투지 그리고 광기로 생태계를 복제한 프로젝트는 인간의 질문과 상상력이 어디까지 날아가서, 무엇을 형성하는지 잘 드러낸다.

“만약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복제할 수 있다면?”

SF 소설에 나올법한 가정으로 시작된 'Biosphere 2(바이오스피어 2)' 프로젝트는 햇빛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차단한 인공 생태계다. 지구의 생태계를 'Biosphere 1(바이오스피어 1)'로 정의하고, 정확히 모든 것을 복제하여 장기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드는 장대한 프로젝트다. 총면적 3,842평에 3800종의 종이 사는 이곳의 건축물은 웅장하다. 1851년, 영국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선보인 새로운 건축인 수정궁(Crystal Palace)을 떠오르게 하는 피라미드형 철골유리구조물과 여러 개의 돔에 열대우림, 초원, 사막, 습지, 바다 등 여러 층위의 생물 군계가 재현된다. 건축물들은 밀 바닥까지 접시 모양의 강철로 막혀있기 때문에 완벽한 밀폐형 구조체다. 공기나 땅에서 유입되는 유기체, 미생물, 토양, 수분, 공기와 이산화탄소의 비율, 농사 등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험실은 1991년 애리조나 사막 위에 건설되었다. 햇빛을 제외한 모든 지구 생태계를 복제하는 이 광기 어린 프로젝트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된 시스템에서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한지를 실험하고, 둘째,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나 변동 상태를 연구하고, 셋째,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8명의 연구원 집단은 스스로 바이오스피어인(Biospherians)이라 부르며, 복제된 생태계로 들어갔다. 점프슈트 유니폼을 입고 생활했으며, 우주선 내의 승무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달과 화성 테라포밍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차 실험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차 실험이 진행됐다. 바이오스피어인들의 역할은 생태계 관리하기, 이를테면 식량을 지배하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일들이다. 바이오스피어 1(지구)에서 2분이면 주문할 피자를 일 년간 밀을 재배해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이 년간 고구마만 질리게 먹었다고 고백한 어느 연구원의 회고가 기억에 남는다.²

두 번의 실험은 모두 철저히 실패했다. 2. TED, "Jane Poynter: Life in Biosphere 2", June 15,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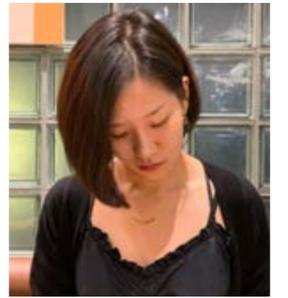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사이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다. 애리조나의 사막 날씨와 건축 구조물의 결함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열대 우림 지역에 조성된 흙에 함께 포함된 미생물이었다.³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미생물의 무한한 활동으로 인해 산소량이 14%까지 떨어지며 시스템이 완벽히 붕괴됐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라는 변수를 간과했다. 여덟 명의 연구원은 모두 탈출했다. 이 년 뒤,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간 두 번째 시도에서 바이오스피어인들은 분열됐다. 처음은 처음이라 견딜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맞이한 절대적 고립의 경험 속에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결국 갈등으로 실패한다. 바이오스피어 2의 창업자 및 공동 창업자는 고쳐되고, 결국 이 생태 실험실은 대학의 산하 연구시설로 재편됐다.

생태계를 통제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꿈과 테라포밍의 희망은 사라졌다. 바이오스피어2의 실패를 보며, 과학자 Joel Cohen과 David Tilman은 "자연 생태계가 무료로 생산하는 생명 유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다.⁴ 2억 달러, 즉 한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명의 인간이 2년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기, 물, 적절한 식량을 생산했을 뿐이라고.



Biospherians. 1991. by Deborah Snyder/Courtesy Institute Of Ecotechnics

달리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구를 제외한 생태계를 알지 못한다. 가끔 화성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 정도가 전부다. 그러나 인간들 나름대로의 도전과 행동은 바이오스피어 2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신이 흙으로 주물러 만든 태초의 인간처럼 8명의 승무원은 현대 과학과 자본으로 만든 밀폐된 생태계를 살뜰하게 아꼈다. 즉,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증명했다. 33년 전에 이 년의 생존기간을 증명했으니, 이제는 기후과학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온난화 연구를 도울 것이다. 혹은 지구 생태계의 새로운 이주 공간을 위한 테스트 베드가 될지도 모른다.



정수경 INSTAGRAM @mee.mee.ju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패셔지, 예술지 에디터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갔다. 파리1대학 미술사학과 학사, 건축사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건축 큐레이팅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독립 큐레이터로 글과 전시를 만들었다. 그러다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인문학베이스 콘텐츠 기획사 '후주(퇴교는여자들)'를 창업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내 삶에 묻어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7월 24시간 일하면서 산다. '시선은 가장 미시적인 형태의 권력'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가를 예민하게 선택하는 중이다.



그러니 축하하자. 질문하는 영장류는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구하려 들기도 한다. 바이오스피어 1(지구)의 대안, 복제품, 레플리카는 지구 안팎에서 광기에 의지와 용기를 버무려 계속해서 탄생할 거다. 요즘은 이런 것들에 기후테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인간은 이렇듯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담에서 방법을 찾을 거다. 지구가 그때까지 버텨준다면 인간과 지구상의 종들은 멸종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조건은 '지구가 우리를 기다려 준다면'이다.

* Biosphere 2의 기획자이자 창업자는 사업가이자 극작가, 환경운동가인 존 앨런(John P. Allen, 1929-)이다. 대학에서 철학과 석사과정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아방가르드 극단을 공동 창립해 학계 간 공연과 환경 주제를 탐구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의 극적인 이곳을 만들었다.

호기심은 멸종하지는 않겠다.

14

15

어린이와 함께하는 ANTI-FREEZE!

자연에 손 내밀어보기

탐조와 파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환경 + 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는 땅 속의 미생물부터 벌과 곤충, 꽃과 작물, 새, 동물,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생태계가 얼어붙어 멈추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2023년 9월, 어느 화창한 주말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은 '탐조'와 '파종'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연의 생명들에 직접 가까이 다가가고 지구와 환경을 위한 실천을 흥미롭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탐조책방과 함께하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새 산책

'탐조'는 새를 관찰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 얼마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지 직접 관찰해본 적이 있나요? 2023년 9월의 어느 날씨 좋은 일요일, '탐조'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탐조책방과 함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멋진 쌍안경을 들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알록달록 휴지심 쌍안경을 만들어서 탐조책방 선생님을 따라 활동에 나섰어요. 관찰 후에는 직접 관찰한 새를 그려보고 모두 모여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어요.



멋진 쌍안경으로 함께 새를 따라가보자!



알록달록 휴지심 쌍안경도 잘 보이는걸요?



탐조를 위한 휴지심 쌍안경 만들기

세상에! 박물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새들을 만났게요? 큰부리까마귀,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직박구리 등등. 넓지도 않은 공간에서 무려 11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우리 곁에는 생김새도, 울음소리도 제각각인 새들이 이렇게나 많이 살고 있답니다. 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박새

큰부리까마귀

딱새(알컷)

붉은머리오목눈이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멧비둘기

직박구리

종이	종이명	성별	발견 장소	비고
1	큰부리까마귀	♂	새우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2	멧비둘기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3	딱새(알컷)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4	박새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5	직박구리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6	멧비둘기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7	곤줄박이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8	붉은머리오목눈이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9	멧비둘기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10	직박구리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11	멧비둘기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12	멧비둘기	♂	북쪽 주차장 2번 차대 북쪽 길목	

모니터링지 (2023. 9. 11)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김이준, 만 8세, 김포호수초등학교

처음에는 새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기다리니까 짹짹 소리도 들리고 까악까악까악 큰부리까마귀 소리도 들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직박구리는 많이 봤는데 새끼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림은 제가 한 5살쯤부터 그렸어요. 그때 물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진짜처럼 사진을 보고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다가 이렇게 잘 그리게 됐어요. 저는 꿈이 조류학자예요. 요즘엔 맹금류가 좋아요. 독수리나 수리 같은 새들. 그래서 맹금류 전문 조류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래스카맹금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탐조책방
INSTAGRAM @bird_books
'탐조책방'은 탐조와 생태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획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1호 탐조 책방이다. 탐조활동을 통해 자연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새들과 사람이 공존하며 생태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많은 이들과 나눈다.
사진제공: 탐조책방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 대규모 입주 시작.. "한 뼘의 땅이라도 녹색으로 물들게 하자"

지난 9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하반기 최대 식물 아파트 입주자가 이뤄졌다. 건설사이자 문화예술 콜렉티브) 피스오브피스(이연우, 천근성)가 사망선고(폐기물선고)를 받은 폐가구를 직접 수집하고 기부 받아 가공하여 조성한 식물아파트단지에서 드디어 초록빛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피스오브피스는 입주자들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직접 각인하고 꼼꼼히 시공하며 아파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 입주자들은 원하는 세대를 선정하고 원하는 씨앗을 골라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정성스럽게 입주(파종)를 완료하였다. 입주(파종) 후에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인테리어에 열심인 모습도 눈에 띈다.



입주 식물들 골라주세요.



입주예정자들이 씨앗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피스오브피스와 함께 파종



신중하게 씨앗을 입주시켜요.



인테리어는 나만의 스타일로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8가지 식물 -크림슨 클로버, 헤어리베치, 꽃양귀비, 유채, 겨울 봄동, 보리, 호밀, 시금치- 입주 완료 후,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옥상은 초록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봄동과 시금치 등은 수확까지 성공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는 일은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탄소 저장 효과도 특적이다. 아파트에서 버려진 가구들로 제작한 식물아파트에 어린이들과 씨앗을 심고 가꿔보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을 건설하고자 했던 피스오브피스의 계획대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쓸쓸한 옥상에도 초록빛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다.



2023. 9. 10. 갯 입주를 마친 세대



봄동 록, 시금치 록



삼남매의 봄동, 양귀비, 클로버 동반 입주



2023. 10. 9. 시금치, 호밀, 유채



2023. 10. 9. 보리



2023. 10. 11. 봄동



식물아파트 3단지 전경



2023. 10. 17. 헤어리베치, 유채



가장 높은 곳은 '새들을 위한 쉼터하우스'



식물아파트 2단지



< 봄동과 시금치(2023) >
★★★★★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풍부한 섬유질의 신랄한 단맛"

피스오브피스 Piece of peace
INSTAGRAM @popp_studio
'피스오브피스(Piece of peace, 이연우, 천근성)'는 '자투리 순환', '사물 돌봄'이란 키워드를 통해 제작 문화 확산을 꿈꾸고 직접예술을 지향하는 콜렉티브이다. 예술가, 문화기획자, 제작자 등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예술을 통한 사회 인식 개선과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적당하며 창작, 설치, 디자인, 기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정한 세상이 그리울 때



< 패딩턴 >

개봉 국가 2015(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상영시간 95분
장르 코미디, 가족, 모험
감독 폴 킹
출연 벤 위쇼, 니콜 키드먼, 휴 보넬, 쉐리 호킨스 등
등급 전체 관람가

다정한 세상이 그리울 때

인정하기 슬프지만 우리는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 행여 작은 실수라도 하거나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더 매몰차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도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매몰차에 매번 작아지기 마련이다. 영화 < 패딩턴 >을 보게 된 날도 관용 없는 세상에 서운하고 지친 날이었다.

고향 페루에 지진이 나던 날, 삼촌을 잃게 된 어린 곰 패딩턴은 다리가 불편한 숙모를 뒤로하고 홀로 런던으로 떠난다. 어느 옛날 삼촌 곰 부부와 교감을 하고 떠난 다정한 탐험가의 초대와,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기차역에 홀로 있으면 돌봐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패기 좋게 런던에 도착하지만, 일분일초가 바쁜 런던 사람들은 패딩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로지 메리 아주머니만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고,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패딩턴의 런던 적응기가 시작된다. 사람도 아니고 곰인 패딩턴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패딩턴은 때때로 실수를 하고, 혼이 난다. 결국 오해를 사고 메리 아주머니네 집을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메리 아주머니 가족은 실수할지언정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다정하게 행동했던 패딩턴을 기꺼이 구하러 간다.

어린 곰 패딩턴을 보고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떠오른다. 작고,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호기심 덩어리들. 호기심에 못 이겨 갖가지 실수를 투척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들. 실수한 패딩턴이 혼나는 모습을 보면, 어린이가 할 수도 있는 실수에 눈총을 보내고 아예 그 공간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요즘의 세태가 떠오른다. 비단 어린이만이 아니다. 요즘의 예쁘고 좋아 보이는 공간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수많은 노키즈, 노시니어존에는 SNS 게시물처럼 작은 흠도 실수도 없는 존재만이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정한 세상이 그리다. < 패딩턴 >의 세계는 곰마저 어울릴 수 있는 다정한 세계이다. 부럽지만, 영화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메리 아주머니의 말을 곱씹어 본다.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두 어울려 지낼 수 있어."

이지수 INSTAGRAM @_studio

포스터 출처: Heyday Films Ltd.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감기에 특효약 배숙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목이 따끔해질 때면, 어릴 적 먹던 배숙이 생각나요. 과일을 따뜻하게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과 대추, 계피 향과 어우러져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감기에 좋은 것은 다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이자 유년 시절의 몽글몽글한 기억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메뉴예요.

1인분

배 1개 | 꿀 1큰술 | 생강 약간 | 건대추 1개 | 계피 1/2조각

안전한 비선식을 원한다면 꿀 대신 올리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 1.생강은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편으로 썬다.
2.건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돌돌 말아 모은 후 얇게 썰어 예쁜 모양을 만든다.
3.배의 윗면을 2cm 정도 자른다. 원형으로 칼집을 낸 후 숟가락으로 속을 파내고, 파낸 과육은 먹기 좋은크기로 잘라 보관한다.*
4.속을 파낸 배 안에 잘라둔 과육과 꿀, 생강, 건대추, 계피를 넣는다.
5.내열 접시를 아래에 받치고 잘라낸 배의 뚜껑을 달아 20분간 찜술에 찌서 완성한다.

*배 가운데 부분은 단단해서 파낼 때 조심해야 해요. 배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본 기사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2023. 진민실 지음, 세력산 사진, 세이플론)를 발췌/편집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진민실

INSTAGRAM @huam3house

겨울엔 방어, 여름엔 초당옥수수를 놓치면 큰일 나는, 먹는 데 진심인 사람. 재료에 예민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권속수'에서 근무하며 사계절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때마다 계절 재료 챙겨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이후 백화점 식품팀, 푸드 스타트업을 거치고, 직전까지 브랜드 에이전시에서 F&B 콘텐츠를 만들었다. 취미는 집 앞 슈퍼에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식재료를 구경하기. 특기는 "이건 꼭 먹어야 해!"하며 주변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기. '제철 재료 전도사'를 자처하며 계절 식재료를 탐구하는 유튜브 채널 < 후암동상츨집 >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가 있다.



이후석 INSTAGRAM @sir_hoo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건축 디자이너/타로리스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VR/AR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타로에 진심이지만 타로를 신봉하지 않는다. 다만, 타로를 앞에 두고 오가는 대화와 생각의 힘을 믿는다.

이것은 타로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견지하고있는, 다소 냉소적인 시선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모든 카드를 늘어놓고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타로는 애초에 복수의 사람이 등장하는 카드가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로가 대부분 개인에게 국한된 주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사를 보여주는 매체로서 생각해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카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타로는 왜 이렇게 야박한 시선으로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걸까요?

(1부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타로의 풀이가 '개인이 세상에 취하는 태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놓인 각각의 개인들이고, 안팎으로 관계를 맺는 서로 다른 다수의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과 번뇌는 이 개체들간의 관계 혹은 개체들이 이뤄놓고 있는 사회와의 마찰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으며, 인간이라는 동등 개체로서 겪어야 하는 동일한 한계입니다.

Playlist graphic with QR code and track list: 1.봄처녀 - 선우정아, 2.여름밤에 우리 - 진진희, 3.금성 - 허클베리핀, 4.지구인 - 지선, 5.너의 자세 - 파라솔, 6.이유도 없이 나는 섬으로 가네 - 도마, 7.문수의 비밀 - 루시드 플, 8.CAT SONG - 김윤아, 9.우주로 보내진 라이카 - 델리스파이스, 10.삼도천 - 이상은, 11.조울 - 한영애, 12.제주바람 20110807 - 3호선 버터플라이

편집실 PLAYLIST는 유튜브 채널 '어박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인류학

2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세계에 속한 하나의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과 여러가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여러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타로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동물이 등장합니다. 개, 고양이, 새, 사자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죠. (말이 그려진 카드는 조금 예외로, 말은 '이동' 그 자체의 의미로 타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등장하는 카드는 예외없이 둘 사이의 우호적인 유대를 나타낸다는 점 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길들이는 관계로서가 아니라 인물에게 중요한 대상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사이의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들을 카드에 사용했다는 점. 둘째, 그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관계이자 우호관계라는 점 입니다.

이걸 조금 꼬아서 한 번 타로에 대입해볼까요? 세상 모든사람이 각자 본인을 나타내는 3장의 타로를 뽑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 3장의 카드로 풀이된 성격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78장의 카드 중 각자 3개씩을 정체성으로서 가지고 있으며, 뽑은 순서를 지켜 풀이했다고 가정한다면, '갑소사, 세상에는 사십오만육천사백오십육개의 인간상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456,455개의 인간상과 마주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456,455 종류의 개인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1인칭인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미지 제공: 이후석

예시가 조금 극단적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타로는 냉정하게 진실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영역은 온통 다른 개인과 부딪치며 생긴 혼저름입니다.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사이의 관계란 때론 좋지않은 운통이기적이고 참아내야 하는 일들 투성이니까요. 카드가 직면하고 있고, 비춰줘야 하는 객관적인 현실 또한 바로 그 언저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을 나누고 평생을 함께하는 단 한사람의 '반려자'를 제외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반려라는 수식어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놓여 대결하는 각각의 개체로서 반려의 관계가 된다는건 그만큼 어렵고 특별한 일이니까요. 반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나 식물, 요즘은 무생물까지도 흔히 반려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르곤 합니다. 사람을 배신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가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타로가 바라보는 인간세상은 결국 '서로에게 반려인간이 되어줄 수 없는 개인들의 격돌'입니다.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반려'라는 수식어가 어려운 것이 어쩌면 극단적 지성체(라고 주장하는) 동물로서의 한 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우리는 '반려'뿐만 아니라 '배려'라는 말 또한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반려의 존재는 아닐지라도, 배려의 존재로서 따뜻함을 전하는 사이 정도는 되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와 기꺼이 온기를 나눠주는 이 작은 생물들처럼 말이죠.

Advertisement for '씨앗폭탄' (Seed Bomb) with image of a seed bomb and text: '생명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고, 꽃을 피우는 씨앗폭탄' and '씨앗폭탄은 누구나 계절의 카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찌리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고양이 뽕뽕이

반려인간: 김지아루, 대학생



볼금이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플 것 같은 체구를 가졌지만 그림에도 볼금은 1년 365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반려인간: 김재원



모모짱(원) 룡룡짱(오)

우리집 왕관앵무들. 귀엽다.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귀엽다.

반려인간: 양승욱, 시각예술가



칠칠이(원) 석삼이(중) 팔보채(오)

앞으로, 뿌리로, 온몸으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우리 칠석팔을 보고 있노라면 나 또한 내 마음대로 회사를 다닐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샘솟아요.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반려인간: 강연송(29), 제조업 종사



플

왕커서 왕귀여워요. 덩치는 크지만 순둥이 삼살이에요. 귀여워요

반려인간: 아오



준구

준구는 귀엽다

반려인간: 조준우



뚝미(원) 앵두(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애교

반려인간: 왕발



샤를(원) 루이(오)

루이는 가족 중에 저만 좋아하고 메이플 펫처럼 졸졸쫓아다닙니다. 샤를은 수더분해서 그루밍도 잘 못하고, 피재재한 냄새나는게 너무 중독적이고 귀여웠어요.

반려인간: 이창주



황틸란

생명력이 강인합니다. 정신없이 살아 신경을 많이 못써줄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아남아 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전히 생생한 초록빛을 저에게 선사해줍니다. 빗물을 좋아하는 예쁜아이예요.

반려인간: 황호생, 건축인



하루

거대 고양이 하루 사랑스럽게 다가와 야옹 인사해주며 부비부비하는 모습이 아기 같은 우리집 막내랍니다.

반려인간: 복덩이 쭈

천하제일 반려오오 사랑대회



우리올리브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 가지를 무심하게 화분 안에 꽂아 두었는데, 그 어렵다는 올리브나무 뿌리내리기를 한 친구. 잘 먹고 잘 크는 투명하고 귀여운 아이.

반려인간: 은주최, 디자인노동자



데자와

데자와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

반려인간: ㅎㅎㅎ



니코니코니

10년이 넘게 저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친구랍니다. 집만 나서면 어디든지 여행!

반려인간: 김정민



애무원프로

저의 반려맥북은 어디에 있던 배터리가 있는 경우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없는 저의 삶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반려인간: 별



쁘띠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쁘띠! 온순하고 먹이도 잘 먹고 눈망울은 빨간 앵두 같은 예쁜 도마뱀이다.

반려인간: 남남이



반려친구

제 반려 친구들은 본인들이 반려친구라고 자처했어요. 제 반려 친구들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줘요.

반려인간: 수맹이



올순이

우리 올순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힘든 여정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준 든든한 친구입니다.

반려인간: 박민주, Cremona



올로(Y이O)

불임성이 좋아서 강아지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싸우는걸 싫어하는 평화주의견. 처음 보는 사람을 쫓아 좋아하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집 사랑스러운 8살 막내!

반려인간: New 승희



깍뽕이

우리 깍뽕이는 제 위장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반려인간: 이종관(31), 기술사무직



몽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귀여움

반려인간: 손지완(36), 보안